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6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반도체 강세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

-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재경신: S&P500 +0.29%, 나스닥 +0.89%
- 미 국방 장관 "휴전 유지"..국제유가·국채금리 하락
- AI발 반도체 랠리..인텔·마이크론 10%대 급등

Summary

미국증시 반등: 나스닥·S&P500 다시 '사상 최고'

5월 5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전일의 하락을 딛고 일제히 상승 마감. 이란과 미국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에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반도체주가 급등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탬.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하루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73% 상승한 49,298.25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81% 상승한 7,259.22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1.03% 상승한 25,326.126에 거래를 마감.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1.75% 상승한 2,845.004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4.98% 하락한 17.38에 마감. .

(다우 +0.73%, 나스닥 +1.03%, S&P500 +0.81%, 러셀2000 +1.75%)

미 국방 "이란과 휴전 끝나지 않았다"

이 날 시장 상승 분위기를 뒷받침한건 국제유가의 하락과 이를 반영한 국채 금리의 하락. 전일 미국과 이란 사이 교전 발생 소식에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이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란과의 휴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자 급락 전환. 피트 헤그세스 국방 장관은 이 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상업용 선박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 화력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미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전일의 교전으로 휴전이 끝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날 백악관 행사에서 휴전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해. 이란이 상선을 공격하고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음에도 이를 휴전 파기로 규정짓지 않는 분위기로 확전 명분 쌓기보다 의도적 상황 관리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 실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날 지난 2월말 미국이 개시한 대 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으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방어적 차원의 '해방 프로젝트(Freedom Project)'를 미국이 호의에 의해 수행 중이라고 밝힘.

AI발 반도체 랠리 "So Hot!"

반도체주가 AI발 모멘텀을 반영하며 강력한 랠리로 시장 상승을 이끎. 애플이 자사 기기의 핵심 프로세서 생산을 위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인텔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대 용량 SSD 공개 이후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7천억 달러를 돌파함. 브로드컴과 램리서치, 샌디스크 등 관련주 전반이 상승. 반도체 설계 업체 AMD는 장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이 데이터센터 매출을 중심으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으며 나아가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상승. 다만 엔비디아는 당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내 점유율이 수직낙하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만 강화됐다는 시각 속에 약세.

4월 ISM 서비스업지수 예상 하회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이 집계하는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6으로 3월 수치 54.0보다 0.4포인트 하락했으며 시장 예상치 53.7도 소폭 하회. 세부 지표로는 기업 활동 지수가 55.9로 3월보다 2포인트 상승. 다만 신규 주문 지수가 53.5를 기록해 3월의 60.6에서 7.1포인트 급락했고 고용 지수는 48.0을 기록해 3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했지만 두 달 연속 기준선 50을 하회하며 수축 국면을 지속. 가격 지수는 70.7을 기록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달 수치와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재고 지수는 53.1로 3월 수치 대비 1.7포인트 하락.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의 성장 속도는 빨라졌으나 신규 주문과 재고의 성장세가 둔화했으며 고용은 다소 위축된 상태를 유지. ISM 서비스업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 가격 상승이 아직 관련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향후 몇 달간 가격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

한편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건수는 686만 6천건으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보다 약 3만~4만건 많아. 전쟁 발발 이후에도 노동 시장 수요는 견조했음을 시사.

특징종목

반도체 초강세..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23%

반도체주가 초 강세로 나스닥과 S&P500 지수의 상승을 견인. 특히 인텔(+12.92%)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06%)의 급등이 돋보였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4.23% 급등함.

인텔(+12.92%)은 애플(+2.66%)이 인텔의 칩 제조 서비스 이용에 대해 초기 단계 논의를 진행했다는 블룸버그 보도 이후 급등. 블룸버그는 애플이 인텔 뿐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탐색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보도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06%)는 최대 용량의 SSD 출하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이후 급등. 마이크론은 이번 획기적인 용량 증대는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게 랙 수준의 총 소유 비용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전력 가용성이 AI 인

프라 확장의 핵심 제약 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 마이크론은 올 들어 120% 이상 상승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700% 상승. 이 날 상승으로 시가총액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 돌파. SSD 제조사 샌디스크(+11.98%) 주가도 급등. 역시 올 들어 약 6배 상승. 웨스턴 디지털(+5.18%), 램리서치(+6.66%), 브로드컴(+2.61%), 퀄컴(+10.79%) 등 관련주 대체로 강세.

한편 서버 제조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0.32%)도 마감 후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 전분기 실적은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1년 전에 비해 123% 급증. 이익은 기대를 크게 웃돌아. 여기에 현재 진행 분기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 이상으로 제시.

AMD(+4.02%) 역시 데이터센터 매출 중심의 전분기 실적 성장과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가운데 시간 외 거래에서 추가 상승.

팔란티어, 실적은 좋은데..

팔란티어 테크(-6.93%)는 전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주가는 크게 하락. 팔란티어는 전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85% 급증한 16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인 12억 8천만 달러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해 강력한 내수 성장세를 반영했다고 발표.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치 0.28달러를 넘어선 0.33달러로 집계. 전분기 실적 호조에 연간 매출 전망치도 기존 약 72억 달러에서 최대 76억 6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 다만 AI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심화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 날 주가에는 더 크게 반영.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0.57%) 역시 전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지만 주가는 강보합에 그침.

이외 개별 특징주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15.62%)는 2분기 매출 성장률이 1분기 34%에서 20% 후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총이익 증가율도 1분기 32% 이상에서 20% 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한 후 하락.

화학회사 듀폰(+8.43%)은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며 강세.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 글로벌(-2.58%)는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 수를 14% 감축한다고 발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AI를 핵심으로 삼아 스타트업 창업 당시의 속도와 집중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페이팔 홀딩스(-7.74%) 역시 직원 20%를 감원한다는 보도 이후 하락. 이번 분기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해 전년 동기 대비 조정 순이익이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보다 더 큰 폭 감소.

언어 학습 앱 개발사 듀오링고(-5.62%), 1분기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 하회했다고 밝

힌 이후 하락. 2분기 예약 매출도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5.54%), 연간 매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며 하락.

이미지 공유 플랫폼 핀터레스트(+6.86%)는 급등. 전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으며 현재 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예상 상회.

루멘텀 홀딩스(+1.88%)은 전분기 실적이 매출단에서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한 때 급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장기물 중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다 완연한 급락세로 돌아선 국제유가 움직임을 반영하며 하락.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2.4bp 하락한 3.938%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3bp 하락한 4.416%에 거래.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4.3bp 하락한 4.982%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오전장 후반부터 5% 선을 하향 이탈.

전일 미국과 이란 사이 있었던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는 없었으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과 휴전이 끝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휴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답해 시장 우려를 잠재움. 여기에 이 날 발표된 ISM 4월 서비스업 PMI의 하위 지수 중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가격 지수는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인 70.7을 기록했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에도 추가 상승 없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 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60% 초반대로 반영했으며 금리가 25bp 이상 인상될 가능성은 30% 초반대로 전일보다 소폭 낮춰반영 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7% 내외로 반영.

달러 가치 소폭 상승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소폭 상승.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480으로 0.057% 상승. 유가 하락세와 맞물려 장 중 약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유가가 장 중 낙폭을 약간 축소한데다 엔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마감을 앞두고 반등.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496% 상승한 157.880엔을 기록해 지난달 말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이후 되돌림을 보였음. 유로-달러 환율은 0.004% 소폭 하락했고 파운드-달러 환율도 0.044% 하락.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

1.2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1,462.80원 대비 4.75원 상승한 1,466.28원 기록.

국제유가, 급등 하루만에 급락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하락 요인으로 반영하며 급등 하루만에 다시 크게 하락.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6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3.90% 하락한 배럴당 102.27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7월 인도분은 3.99% 하락한 배럴당 109.87달러에 마감. WTI는 장 중 한 때 5% 가량 하락해 배럴당 101달러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장 중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란의 갈등이 반영돼 낙폭은 소폭 축소. UAE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이란은 이는 사실 무근이라며 보복이 있다면 “후회하게 될 것” 이라고 위협.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2.1% 하락.

유가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금값은 반등.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0.8% 상승한 온스당 4,568.50달러에 마감. 구리 가격도 2% 이상 상승해 600달러에 육박.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